[정규과정] 문화 - 스토리텔링개론

주제:잘 만들어진 방송스토리텔링이란?

'감성 중심의 정보 사회'가 만들어 낸 '감성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사회! 잘 만들어진 방송스토리텔링에 대해 알아봅니다.



#감성 스토리텔링



미래학자 롤프 예센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보 사회를 넘어 "드림소사이어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드림소사이어티'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살 때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스토리에 더 중점을 둔다는 의미이다.

사람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감성 중심의 정보 사회'가 만들어 낸 '감성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지금의 사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그것들을 재료로 삼는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감성스토리텔링이 대세인 지금, 방송 콘텐츠에 대해 살펴보자.



#〈파리의 연인〉과 콘텐츠의 상호작용

방송콘텐츠는 다른 콘텐츠보다 빨리 변하고 발전하다. 그중 하나가 '양방향성 상호작용'이다. 과거 방송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일방향적인 경향을 띠었지만, 이제 더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로 찾아서 보고 있다. 이런 경향은 꽤 오래전부터 방송에 영향을 미쳐왔다.



〈파리의 연인〉의 결말은 극 중 김정은이 시나리오를 쓰고 박신양은 그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로 나오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로 이어 달라는 요청 때문에 두 사람은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설정으로 끝을 맺었다.

>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의 결말은 여주인공의 죽음이었으나 극 중 김태희가 살게 된 것도 바로 방송 콘텐츠가 갖는 양방향성의 결과다.

스토리텔링의 호소력

수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인기 없는 드라마'와 '인기 있는 드라마'가 엄연히 구분되어 존재한다. 그래서 방송작가들은 매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취향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스토리텔링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전문 드라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문 드라마에서 캐릭터는 더욱 전문적이고 복잡 다양한 성격을 가져야만 하고 스토리는 한층 정교해져서 구성이 짜임새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감동과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원한다.
스토리의 재미와 감동은 호소력이 강해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며
아무리 복잡한 아이디어도 스토리를 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물과 사건, 배경이 잘 결합해 만들어진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은
시청자의 상상력과 감정을 최대한 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한다.



스토리텔링의 호소력

이선균과 공효진이 열연한 〈파스타〉는 재미있는 방송 콘텐츠 스토리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라스페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음식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사를 꿈꾸는 여성의 파란만장 성공담을 담은 작품이다.



'내 주방엔 여자란 없다.'로 대변되는 버럭 남 이선균, 그러거나 말거나

"세프~"를 외치며 따라다니는 공효진의 알콩달콩한 사랑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다.
그동안 주방 드라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탈리아 주방 용어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주방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화도 생생하게 표현하며, 두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절절하게 표현하여 개미를 주었다.

달달한 두 사람의 감정라인이 잘 살아 사람들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한 감성적 드라마다.

#잘 만들어진 스토리텔링

잘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은 공감하게 만들고 소통하게 만든다.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란 장르에 맞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인지해 나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 안에는 즐거움과 감동, 도전과 극복, 행복과 불행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또한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영상미가 더해져 그 어떤 수단보다
큰 호소력과 감동을 준다.

